

월정교 복원의 타당성

The Propriety of the Restoration of the Woljunggyo Bridge



장헌덕*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건축학과 교수

1. 머리말

경주는 '신라 천년 세월의 왕도(王都)'이자 '한반도 최초 통일국가의 수도'였던 역사성 깊은 도시이다. 경주의 면적은 남한의 1.3%에 불과하나 총 304건의 지정문화재를 비롯하여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 2건(불국사·석굴암, 경주역사유적지구) 등 수많은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어 문화유산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경주는 도시자체로서 정신문화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세계사적으로도 고대 동·서양 문명교류역할을 한 국제문화도시이기도 하다.

최근 경주시에서는 도시가 지닌 무한한 가치를 승화시키기 위하여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첫 사업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주시에서는 신라천년 궁성과 왕경의 연결통로인 월정교 복원을 기본과제로 설정하였다.

2. 월정교

2.1 연혁

지리적으로 경주는 동서남에 산이 있는 분지지형이다. 또한 서천(西川), 남천(南川), 북천(北川)이 삼면에서 둘러싸고 있어 자연적인 방어역할을 하고 풍부한 수량을 제공하여 신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하여 왔다. 이곳에

도움을 정한 신라는 월성을 왕성의 중심으로 삼고 월성을 바로 끼고 도는 남천의 서남단에 월정교를 세우고, 이 유구에서 문천의 상류쪽으로 약 800m 올라간 지점에 일정교를 세웠다.

월정교와 일정교가 세워진 시기는 신라의 전제왕권이 정점에 이르렀던 경덕왕 19년(760년)이다. 이는 앞서 완성된 월성과 함께 전제왕권의 권위를 과시하고 중앙의 지방 통치라는 명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려는 지배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라시대 왕성이었던 월성의 서남단과 동북단의 통로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에 월정교와 일정교가 처음으로 보이는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로 신라본기(新羅本紀) 제9의 경덕왕 19년(760년) 2월에 「宮南蚊川之上 起月淨·春陽二喬」라고 적혀있다. 『삼국사기』의 기록으로는 신라 경덕왕 때 두 다리는 월정·춘양이라는 이름으로 창건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편찬된 문헌들 가운데 문천상의 교량을 적은 기록에는 한결같이 월정교(月精橋)와 일정교(日精橋)가 문천상에 있었다고 되어있다. 현존하는 유지와 조선시대의 문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월정교와 일정교는 바로 『삼국사기』에 기록된 월정·춘양 2교의 명칭이 바뀐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것이 언제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조선 제9대 성종 때 편찬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월정교(月精橋)·일정교

禮調府舍知爲司庫領客府舍知爲司儀乘府
 舍知爲司牧船府舍知爲同舟例作府舍知爲
 司例兵部督舍知爲司兵倉部租舍知爲司倉
 三月彗星見至秋乃戕
 十九年春正月都城寅方有聲如伐鼓衆人謂
 之鬼鼓二月宮中穿大池又於宮南蚊川之上
 起月淨春陽二橋夏四月侍中廉相退伊飡金
 邕爲侍中秋七月封王子軌運爲王太子
 二十年春正月朔虹貫日日有珥夏四月彗星出

그림 1 『삼국사기』 권제9 신라본기 제9 경덕왕조

(日精橋)로 나와 있어 이미 조선초기 이전에 두 다리는 월정교·일정교로 불리웠음을 알 수 있다. 이후의 기록인 『동경잡기(東京雜記)』, 『경주부읍지(慶州府邑誌)』, 『동경통지(東京通誌)』, 『금오승람(金鰲勝覽)』, 『동경속지(東京續誌)』, 『경주읍지(慶州邑誌)』 등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전재(轉載) 또는 약기(略記)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동경잡기(東京雜記)』에는 현재는

精橋 一云春陽橋舊在 月精橋 舊在府西南故
 尚存 金克己詩 辛月城南兔嶺邊 虹橋倒影照
 川蛇 蛟騰漢尾 垂地蟠 飲河 撐於 天 手 斬 嘉 城 河
 起 勇 身 成 白 鶴 令 成 仙 昔 對 逸 鬼 橋 在 神 元 寺 傍
 迹 皆 驚 俗 漸 絕 區 區 數 徒 還 鬼 橋 在 神 元 寺 傍
 真 智 王 闍 紗 羅 部 祿 花 娘 之 美 召 致 宮 中 欲 幸 之 娘
 曰 妻 有 夫 雖 死 靡 他 王 戲 曰 無 夫 則 可 乎 曰 可 是 年
 王 薨 後 二 年 娘 夫 亦 死 洩 旬 夜 王 如 平 生 到 娘 室 曰
 汝 昔 有 諾 今 無 夫 可 乎 留 御 七 日 忽 然 不 見 娘 遂 有
 娠 生 子 名 曰 鼻 荆 夫 平 王 收 養 宮 中 年 十 五 每 夜 飛
 過 月 城 西 至 荒 川 岸 與 鬼 衆 遊 聞 諸 寺 曉 鐘 而 散 王
 使 勇 士 伺 之 知 其 然 問 荆 曰 汝 領 鬼 衆 遊 信 乎 曰 然
 曰 然 則 汝 使 鬼 衆 成 橋 於 神 元 寺 北 渠 鼻 荆 使 其 徒
 鍊 石 一 夜 成 大 橋 因 名 鬼 橋 王 又 問 鬼 中 有 出 現 人
 間 軀 朝 政 者 乎 曰 有 吉 達 者 可 聖 日 荆 與 俱 見 王 賜

그림 2 『동국여지승람』 제21권 경상도 경주부 고적조

유지(遺址)만 남아 있다⁷⁾고 하여 『동경잡기(東京雜記)』가 쓰인 조선 현종 10년(1669년)경에는 이미 교량의 기능을 상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교량은 760년(경덕왕 19년)에 조영되어 1280년(고려 충렬왕 6년)까지 최소 520년간 다리의 기능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월정교와 일정교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아래 표⁸⁾와 같다.

時期	史料	日精橋	月精橋
統一新羅	① 三國史記	「十九年 ... 二月宮中x 大池又於宮南蚊川之上起月淨春陽二橋...」 『三國史記』 卷 第九 新羅本紀 第九 景德王條 - 景德王 19년(A.D.760...2월, 궁중에 큰 못을 뚫고, 또 궁의 남쪽 문천상에 月淨橋와 春陽橋 두 다리를 놓았다...	좌 동
高麗	② 金克己의 詩	-	李東種編, 1967 「東都詩選上」, 高麗篇, 近代出版社 - 「반월성의 南兔嶺邊에 무지개다리 그림자가 끼꾸러져 문천에 비치었다。」 라는 구절
高麗	③ 慶州 先生案	-	「尙書盧景倫戊寅到任庚辰月精橋造排同年上京」, 『慶州先生案』, 「府尹先生案」(影印本), 아세아문화사, 1982 - 尙書 盧景倫은 戊寅年 到任하여 庚辰年(1280, 고려 충렬왕 6년)에 月精橋를 고쳤으며 같은 해에 上京하였다.

1) 『東京雜記』 古蹟條

8) 서병국, 「신라왕경에서 춘양교와 월정교의 구조와 기능」, 경주대학교대학원, 2004

<표 계속>

時期	史料	日精橋	月精橋
朝鮮	④ 新增東國輿地勝覽	「日精橋一云 春陽橋舊在府東南蚊川上」 『新增東國輿地勝覽』 第二十一卷 慶尙道 慶州府 古蹟條 - 日精橋는 일명 春陽橋라고 하는데 옛날에 府의 동남쪽 문천상에 있었다. 中宗25년(A.D.1530)	「月精橋舊在府西南蚊川上兩橋遺地尙存○金克己時半月城南兎嶺邊虹橋倒影照蚊川…」 『新增東國輿地勝覽』 第二十一卷 慶尙道慶州府 古蹟條 - 月精橋는 옛날에 府의 서남쪽에 있는데, 두 다리의 유지가 아직 남아 있다. 金克己의 시에 ‘半月城 남쪽 兎嶺가에 虹橋의 그림자가 蚊川에 거꾸로 비추었네…
	⑤ 東京志	- 내용 위 ④와 동일 작가 연대미상	- 내용 위 ④와 동일
	⑥ 東京雜記	「日精橋一云 春陽橋舊在府東南蚊川上」 『東京雜記』 卷二 古蹟條 - 내용 위 ④와 동일 顯宗10년(A.D.1669)	「月精橋舊在府西南蚊川上兩橋遺地尙存○金克己時半月城南兎嶺邊虹橋倒影照蚊川…」 『東京雜記』 卷二 古蹟條 - 내용 위 ④와 동일
	⑦ 慶州府邑誌	「日精橋一云 春陽橋舊在府東南蚊川上今廢」 『慶州府邑誌』 古蹟條 - 내용 위 ④와 동일…지금은 폐하여졌다.	「月精橋舊在府西南蚊川上兩橋遺地尙存○金克己時半月城南兎嶺邊虹橋倒影照蚊川…」 『慶州府邑誌』 古蹟條 - 내용 위 ④와 동일
	⑧ 東京通誌	「日精橋一云 春陽橋舊地在府東南蚊川上」 『東京通誌』 卷二 道路附橋梁條 - 日精橋地는 일명 春陽橋라고 하는데 府의 동남쪽 문천상에 있다.(A.D.1933)	「月精橋舊在府西南蚊川上景德王庚子構設日精月精二橋金克己時半月城南兎嶺邊虹橋倒影照蚊川…」 『東京通誌』 卷二 道路附橋梁條 - 月精橋地는 府의 서남쪽 문천상에 있다. 景德王 때 庚子年에 日精橋, 月精橋 두 다리를 만들었다. 金克己의 시에… 이하 내용 위 ④와 동일
	⑨ 金鰲勝覽	「(日精橋)(月精橋) 鬼橋竝見古蹟」 『金鰲勝覽』 卷之二 橋梁條 - 日精橋, 月精橋, 鬼橋가 나란히 古蹟에 보인다. 「日精橋一云春陽橋舊在府東南蚊川上」 『金鰲勝覽』 卷之二 古蹟條 - 내용 위 ④와 동일	「月精橋舊在府西南蚊川上兩橋遺地尙存○金克己時半月城南兎嶺邊虹橋倒影照蚊川…」 『金鰲勝覽』 卷之二 古蹟條 - 내용 위 ④와 동일
	⑩ 東京續誌	「日精橋址는 一云春陽橋址라 하니 在府東南蚊川上하나라」 『東京續誌』 卷第六 道路附橋梁條 - 내용 위 ④와 동일	「月精橋地는 在府西南蚊川上하나 景德王庚子에 構設日精月精二橋하나라(金克己時半月城南兎嶺邊虹橋倒影照蚊川…)」 『東京續誌』 卷第六 道路附橋梁條 - 내용 위 ⑧과 동일
⑪ 慶州邑誌	「日精橋一云春陽橋」 『慶州邑誌』 卷三橋梁條 - 日精橋는 일명 春陽橋라 한다.	「月精橋舊在蚊川上遺地尙存」 『慶州邑誌』 卷三 橋梁條 - 月精橋는 옛날에 문천상에 있었는데 유지가 아직 남아 있다.	

2.2 월정교 학술조사 경과

월정교지는 1975년에 처음으로 문화재관리국 경주사적관리사무소에서 교대 및 교각을 실측조사하였다. 이후 1982년 7월에 마련된 경주월성공원 조성기본계획에 따른 복원계획에 따라 1984년 11월 26일부터 1985년 4월 24일까지, 1985년 11월 13일부터 1986년 9월 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석재조사를 하였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교각 하류에서 목교로 추정되는 목조교각 저부가 확인되어 보다 정밀하고 학술적인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경주에서는 석재조사를 중단하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고적발굴조사단에 발굴조사를 의뢰하여 1986년

3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우선 목교지 조사를 마친 후, 같은 해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차로 석교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7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학술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고대 교량사 연구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경주에서는 2005년 신라천원 궁성과 왕경의 연결통로인 고대 교량을 복원하고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월정교 주변에 대한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 지침 승인을 받고 2005년 5월에서 9월까지 수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을 통해 2005년 10월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구소와 용역계약을 맺어 「월정교 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에 착수하였다.

2.3 월정교 발굴 결과

월정교지는 기록에 나타나는 남천의 여러 교량 중에 가장 잘 남아있는 유지(遺址)로 4개의 교각하부 기초지반석과 지반석 위에 교각 일부가 남아 있었고, 남측교대와 북측교대가 일부가 무너진 채로 남아 있었다. 북측교대는 2단, 남측교대는 3단의 석축만 남아있던 것을 현재는 양쪽 교대 모두 무너져 있는 부분을 복원해 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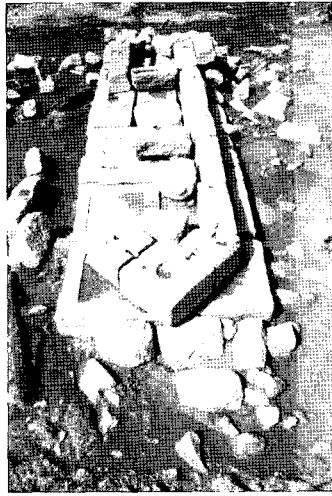


그림 3 월정교 1호교각

았다. 교대는 석축을 견고하게 쌓기 위해서 뒷뿌리가 1.4m 되는 긴 돌뿔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돌뿔을 사용한 축석기법은 경주 남산 신성 내 장창지 석축과 감은사지 앞 석축,

불국사 전면 석축 등에서 볼 수 있다. 하천 가운데 남아있는 교각 기초 중 남편과 북편에 위치한 제1·4교각은 기초 지반석 위에 한 단까지 남아있었고, 가운데 위치한 제2·3교각은 기초 지반석만 흐르는 물속에 잠겨있었다. 교각 간 중심거리는 12.55m로 모두 동일하며, 교대와 교각사이에는 11.46m로 남쪽과 북쪽의 두 경간이 같다. 교각은 장방형 기초대석 위에 선형교각이 올려져 있으며, 기초 대석은 동서방향으로 놓인 장방형이다. 각 교각 기초는 상류와 하류에 방형석재 4매를 田자 모양으로 놓고 그 사이에 장대석을 남북방향으로 놓았다. 교각 기초의 상·하류 방형대석 앞에는 하상바닥의 세굴(洗掘)을 방지하기 위하여 큼직한 자연석 3~4개를 놓아 교각기초를 보호하였으며, 이 장방형 교각기초 위의 교각 첫 단은 장대석 등의 석재로 선형(船形)으로 축조하였다. 마름모형의 석재와 장대석은 원두은장으로 연결시켰던 은장홈이 있으며, 마름모형 석재의 상면중앙에는 직경 약 400mm 크기의 원형 홈이 약 60mm깊이로 파여져 있다. 제4교각과 남측교대 사이에서는 엽을장과 받을장으로 격자로 틀을 짜고 그 사이에 크고 작은 냇돌 등으로 채운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하상보호시설로 추정되는 시설이 남아있다.



그림 4 월정교지 출토연함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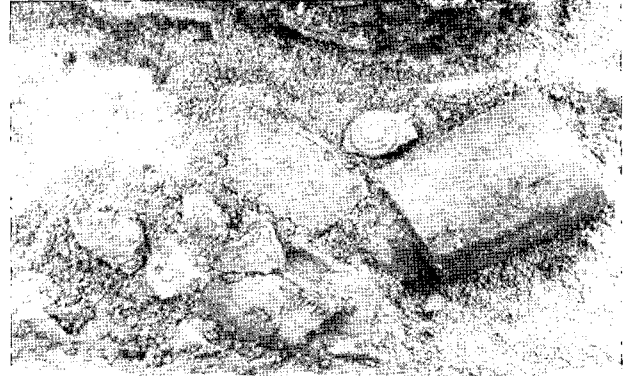


그림 5 월정교지 기와편 출토 상태



그림 6 월정교지 목재출토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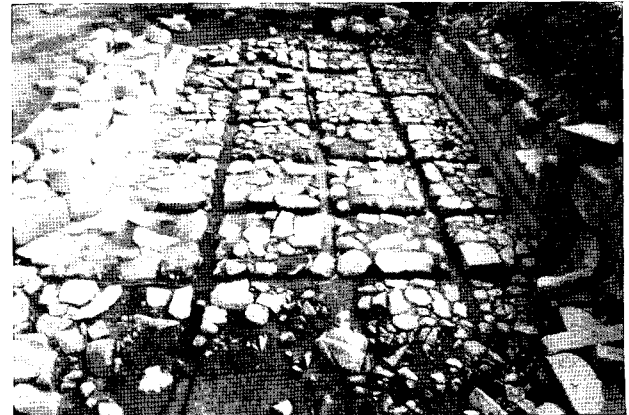


그림 7 월정교지 하상보호시설(격자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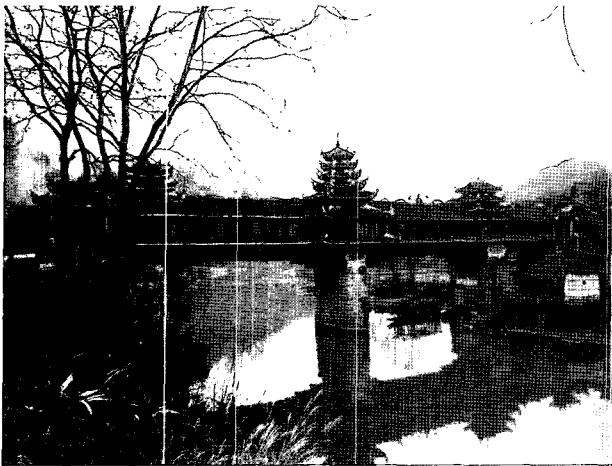


그림 8 중국 보수교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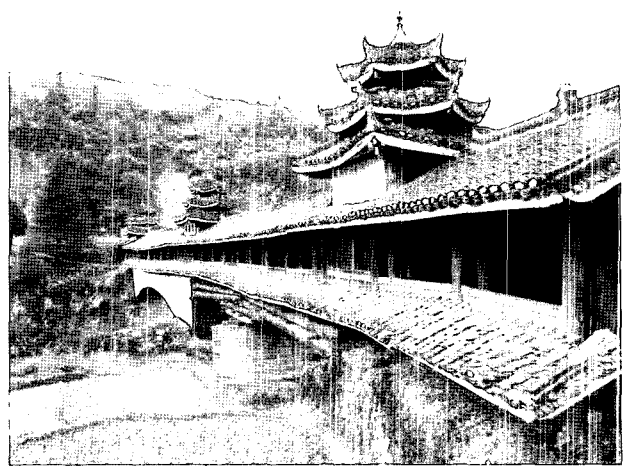


그림 9 중국 회룡교 원경

월정교는 교각 주변에서 연함과 함께 기와, 일부 불에 탄 목재 3점, 칠정 등이 출토되어 루교(樓橋)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다리는 형태상으로는 홍교(虹橋)와 평교(平橋)로 대별할 수 있다. 월정교의 경우 경간은 넓지만 홍교였을 부재가 한개도 출토되지 않아, 평교이면서 상부에 회랑식(回廊式) 건물이 마련된 루교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평교이면서 루교인 다리의 예는 월정교·일정교가 유일하며, 중국의 귀주성(貴州省), 호남성(湖南省) 일대에서 비슷한 형태의 다리를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월정교지 주변 하상에 넓은 범위로 흩어져 있었던 여러 가지 석재들을 양쪽 교대 상부에 모아두었다.

3. 월정교 복원의 타당성

월정교는 당시 궁성(宮城)이었던 월성(月城)을 감싸는 자연해자 역할을 하는 문천(蚊川)에 가설된 다리로, 궁성으로 통하는 가장 중요한 다리여서 통행량도 많고, 화려하고 웅장한 다리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월정교지의 발굴조사가 끝난 지금 복원에 관한 타당성조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신라시대 최대 거찰 황룡사지 남쪽에서 당시의 도로와 마차의 수레바퀴 흔적이 발견되어 당시의 도로 폭을 알게 되었고, 월정교지와 일정교지에서 다리의 정확한 평면수치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왕경길과 관련하여 평면

에 관한 문제는 이미 정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들 유적이 복원되면 중국 당나라 장안성의 격자형 도시계획, 일본 나라 평성경의 방리계획과 연계하여 신라왕경 계획을 비교연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동양 건축사연구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셋째, 지금까지 미해결 문제로 남아있던 상부구조물에 대해서는 이번 과제를 통하여 국·내외 자료를 연구 검토한 결과와 발굴조사 당시의 출토유물, 자문위원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교각과 상부구조물에 대한 다리의 형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복원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모형을 제작하여 하중실험, 수리검토 등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된다.

넷째, 월정교와 연계되는 반월성 주변의 경관은 현재 경관은 고도의 이미지를 줄 수 없으므로 주변의 토지가 매입되면 하상폭 정도는 시굴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고도역사도시에 걸맞은 조경식재계획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로 등도 정비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월정교는 인용사지, 천관사지, 남산유적을 연결해주는 가교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이들 유적 주변을 종합 정비하는 차원에서 복원문제가 제기되어도 고도의 역사경관을 크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수렴되었다. 아울러 월정교가 복원되면 왕궁과 관련된 문화행사의 공간으로 활용하면 그 역사적 의의가 되살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